



“더큰포천, 더큰기업” 8,000 기업인과 함께 !!!

포천상공회의소 뉴스

제44호

2024.07.23

한희준 회장, 수해 피해 회원사 방문

“위로금 전달, 회원사의 새로운 도전 기대”

포천상공회의소(회장 한희준)는 지난 18일 포천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코단콘크리트(주)를 7월 23일에 방문해 위로금을 전달하고 피해 현황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코단콘크리트(주) 박용수 대표는 집중호우로 크라샤가 파손되는 피해를 당했다.” 면서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에 다른 회원사들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장 안전관리와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희준 회장은 “하루 빨리 피해기업에 대한 복구와 크라샤 설치에 대한 관계법규 개정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장마철을 맞아 집중호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장에서는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각종 시설물과 주변 환경을 점검하는 등 비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포천상공회의소

Pocheo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